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전 (4부) 2시 4시
금요일전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3월 31일 (제683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예배·워킹 및 인터넷 생방송)



할미꽃을 보거나

따사한 양지쪽

무렵의 할미꽃

바시시 고개드니

종축한 매인네 못맴시 갈구나

지능 꽃 시러워 물린 그 날도

따사한 봄기운

부활의 꽃피네

덧없다 한란한 할미꽃

진각죽꽃 피며

청춘을 노래한 할미꽃 보거나

朋友

요트를 타고 호수, 강,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느낌! 이것이 자유와 부활의 기쁨이 아닐까.

동우 칼럼

사면복권은 자유다

올해 1월 이명박 전(前)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특별사면으로 55명이 사면 복권되었다. 대통령의 특권이 발휘된 것이다.

사면복권은 자유와 동의어다. 옥에 갇혀 있던 자들이 통치권자의 권한으로 사면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나는 진정한 사

면복권이 우리에게 있었음에 감사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절대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사면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복권시켜 주셨으니 만입을 가진들 그 은혜에 어찌 다 감사하겠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롬6:6-7). 그런데 이런 특별사면을 받고도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옥에서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옥중에 갇혀있는 정신적 불구자들이 있다. 예수로 인하여 사면복권 되었지만, ‘나는 죄인이다’라며 여전히 죄 사슬에 얽매어서 사는 자들, 그들은 영적 불구자다. 이런 자에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무의미하다. 닭장 속에 살던 독수리에게 어느날 주인은 너른 창공으로 보내려고 닭장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독수리가 밖으로 나가자 못한다. 문 밖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혹 그 독수리가 당신 은 아닌가? 영적 자유가 있어야 육적인

자유도 있다.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하고 법사에 잘 되기 때문이다(요삼1:2).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영·혼·육에 사면복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곧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8:36).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의인이요, 자유인이다. 그것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매월 마지막 주는 8편으로 증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53:1~12)

누리고 지켜서 상속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5절, 즉 “예수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를 믿는 죄인들이 영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대속(代贖)의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기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경건한 한 주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십자가 형상을 붙여지고 가고, 더러는 채찍으로 때리고 맞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더러는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고난주간 내내 침통한 얼굴로 지내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통 받는 것도 아니고, 침통한 얼굴로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아 쟁취하신 자유와 평화와 건강과 부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실 때, 고난 받으신 것을 잊고 기뻐하십니다.

속에서 나와도 생각이 속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배우고, 잘 먹지도 못하며 자식을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더러는 팔도 보고, 못들을 소리로 들으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도한답시고 부모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지내겠느냐며 자식이 삼시세끼 김치짜두기로만 연명하고, 웃도 다 떨어진 거나 입으며 궁상을 떨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가 기특도 하지?”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왜 지지리 궁상을 떨어? 너네 잘 먹이고 많이 가르치고 큰 집에 살게 하려고 내가 고생한 건데 그걸 우려야지, 왜 이렇게 살아?”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 때, 당신이 받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시고 뿌듯해하십니다.

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서 다른 수도사들처럼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았으며, 또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도 담요를 뒤집어쓰지도 않은 채 밖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하는 수도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성경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명상이나 자해나 순례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 더욱 면죄부를 통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수정



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95개 조문을 발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은총으로(sola gratia),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해방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의 연설문을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연설문 일부입니다. “저는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이천 노예들의 아들들과 이천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애의 한 테이블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아들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내면적 인격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 살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흑인해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다 결국 흉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바라던 세상이 이루어져 지금은 흑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각 분야에 기량을 발휘하며 흑인

대통령까지 탄생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죄가 없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 앞에 잠잠하셨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지키고 후세에 상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립투사에

국열사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우리에게 물려줬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다음 대(代)에, 내 이웃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서 이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은 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부친의 수고로 이룬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자기 대에 이르러 더욱 왕성하게 발전시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주신 축복, 이 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상속시키고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계를 메주 밟듯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롬10:14).

우리 스스로도 이 축복을 누리고 지켜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빼앗긴다면 하나님의 나라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5:14)’고 하였고, 동일하게

샘물이 사나위를 이루고 사나위가 강물을 이룬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8:11)’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 받은 축복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넘겨준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과 향락에 취하여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절했으며, 하나님께 반역한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태운 거룩한 기명들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자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단5).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받은바 축복과 은혜를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전파해야 합니다. 여섯 남편을 데리고 살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자 나가 받은 구원에 대해 전파한 것처럼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요4:28-30).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므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잘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이웃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요,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성경 관통』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며, 예배 때마다 접하는 책이지만 웬지 모르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gap고도 먼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이나 설교시간에 듣는 내용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관통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경의 숲을 바라보며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성경의 기록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딤후3:16)이기에 '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기록 시기는 B.C 1450년 경부터 신약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A.D 1세기까지 15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약 40여명의 기록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이나 주제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순이나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한 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2. 성경의 구성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구약(舊約)이란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며, 신약(新約)은 새로운 약속을 뜻합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9장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권수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3×9=27이라고 외워두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합이 66권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나 구주자 등으로 지칭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지속적

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들과 초대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3.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이며 수많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지만, 역사나 과학을 증명하거나 지혜만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책에는 작가가 의도하는 기록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5:39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구약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것이로다." 구약성경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사도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 하였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신약과 구약이나 66권의 성경으로 나누거나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고, 물방울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의 줄기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

어 가시는 주도면밀하시고 일관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5. 성경의 주제별 분류

○ 구약성경

◆ 율법서(모세오경 5권): 모세가 기록한 책들인데,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세상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과 각종 언약들과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역사서(12권): 이 책들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 왕조를 세워 가는 과정들과 바벨론과 앗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던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 시가서(5권): 노랫말이나 즐거리가 있거나 인생의 교훈을 기록한 책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 예언서(선지서): 현실을 고발하며, 메시야가 오실 것을 예언한 책들, 기록된 성경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대선지서(5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 신약성경

◆ 복음서(4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전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 역사서(1권): 초대교회의 시작과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

◆ 서신서(편지): 기록자와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서신(13권)

▷ 교리서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 유혹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 묵회서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공동서신(8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 예언서(묵시록 1권): 종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

6. 성경의 해석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리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기록된 책이기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풀려고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봅시다.

예수중심교육



JC Academy series

생각대로 살 것이냐, 사는 대로 살 것이냐?

지난 20일 총회장 목사님의 JC 아카데미 강의 내용이다.

"성공하는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찾아야 한다. 또 꿈의 크기와 성공은 정비례하니 여러분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큰 꿈을 꾸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하기를 힘쓰되, 스스로의 불의와 게으름

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게으른 자는 재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셨고(잠6:6), 또 게으른 자는 부리는 이에 게 이에 초 같으며 눈에 연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다(잠10:26).

성경 속 믿음의 선전들과 세상의 성공자들은 모두 조직적인 정신력을 지녔다. 우리 역시 육체와 생각을 조직적으로 지배하여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마귀의 계교를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1장 28-31절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은 위우전 자를 들어

쓰시는 반면, 변절된 자는 가차 없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도 그가 변절되었기 때문이다(삼상16:1).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또 한 가지, 무딘 철연장을 날마다 갈아야 힘이 들지 않는다고 전도자가 말했다(전10:10). 하나님도 내가 노력하고 싶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게으르고 악한 자는 가차 없이 책망하신다(마25:26-30).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고전4:20) 여러분도 날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명품'이 돼라. 마지막으론 난공불락이 이익이 많다고 했다. 그러

니 두려워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도전하여 위험을 즐기라. 그 때 여러분 영혼육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리고 가지가 무성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오펜이처럼 일어나는 '의인'이 돼라."

오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발한 삼아영·훈·육 모든 분야에서 부지런히 땀을 내고 힘써 노력하자. 그리하여 예수님과 천사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또 스스로에게도 박수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추천도서::

::문학 공간::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진성 지음-

책은 어두운 곳에서 한줄기 빛으로 뻗어오는 희망, 마음의 양식, 우리를 정신적으로 살찌우는 최고의 자양분이자 외부 환경에 대해 저항하기 위한 무기, 탁월한 성장 호르몬이자 원초적인 꿈의 시발이고 온 삶의 밑거름입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무던철 연장을 갈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듯, 두뇌도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고전과 비고전인데, 고전은 짧게는 100~200년, 길게는 1000~2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쓴 진정한 천재들이 자신의 모든 정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인문고전 독서의 영향력, 중요성, 교육방법, 독서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문고전, 즉 문학, 역사, 철학고전을 장기간에 걸쳐 읽으면, 두뇌가 천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억눌려 있던 천재성이 빛을 발하고 평범한 두뇌가 천재의 두뇌로 변화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사례로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을 자주적이고, 행복하고, 능동적인 인간을 만들고 미래의 리더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인문고전 독서교육은 필수적인 것임을 이 책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위렌 버핏, 조지 소로스, 피치 펀치와 같은 자본주의 세계의 승자들의 투자 비법을 두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뒤에 터득하여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문고전의 독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문고전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인문고전이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각 시대의 리더들에

게 철저하게 검증 받은, 인간에 관한 최고의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인문고전이 유익하고 필요하지만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은 인문고전 독서 초보자를 위한 안내지침,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인문고전 독서교육 가이드 및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인문고전 독서교육 단계별 추천도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고전 독서 가이드 및 인문고전 독서 단계별 추천도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인문고전 독서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각 분야에서 큰 리더가 되고 싶은 청소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 세계의 돈을 다 끌어 모으고 싶은 사업가, 세계 경영을 추구하는 정치인, 60억의 인구를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도하고자 하는 기독교인, 그리고 자신과 가정, 소속된 사업장의 건전하고 행복한 리더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문고전 독서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과 독서 방법에 대한 하나의 안내서로서 이 책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관설 장로

kslee@kmi.re.kr

::생활에세이::

리액션이 좋으면 세상살이가 즐거워진다

요즘 TV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리액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각 프로그램의 MC들이 ‘리액션’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시청자의 공감대 형성이 더 수월해진다. TV 프로그램의 MC들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리액션’은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주위의 반응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에 집안의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그 식사 자리는 상당히 거북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신나서 이야기하는 반응이 없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같이 지켜보는 사람들도 민망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함께 웃어주고 이야기에 흥미를 넣으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리액션’이라 할 수 있다.

‘리액션’의 중요성은 삶의 곳곳에서 수시로 느낄 수 있다. 특히나 여행을 떠나거나 장을 보러 갈 경우에는 딱딱한 표정과 사무적인 어투는 버리고 가는 것이 좋다. 여행지의 식당이나 장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건네는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말은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맛있는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

몇 년 전, 팔아이와 함께 제주 여행길에 우연히 들른 식당이 있었다. 이른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여 밥을 차려주시는 아주머니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계속하였다. 식사를 마친 뒤에 아주머니가 나가는 길에 잠시 같이 들러 데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그분이 운영하는 펜션이었다. 우리가 묵을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편히 쉬다가라는 것이었다. ‘설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분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이후, 제주에 여행을 갈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식사와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도착한 후 그분의 호의에 감사하여 진심이 담긴 인사를 드리고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렸다. 얼마 후, 제주에서 커다란 선물 상자가 도착했다. 제주산 흑돼지와 생선, 갓 수확한 감귤과 밀반찬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그분에게 무심코 건넨 한마디의 인사와 진심을 담은 작은 선물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아주머니는 이후로 제주의 특산물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신다. 일상생활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 만남의 순간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의와 진심을 담은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리액션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양과 소박한 자세로 주위의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봐야 할 것이다. 미사여구가 아니어도 천절할 어투와 순수한 마음이면 그들의 빛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변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대화와 인정이 메달라가는 세상에서 주위의 그들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만 있어도 우리 주변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가족들에게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제자들을 향한 진심어린 충고 한마디가 켈리반과 헬렌 켈러와 같은 사제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며, 소외된 이웃에게 건네는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손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작은 리액션이 세상을 바꾼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과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지순아

lovelyactor@naver.com

KU 시네마 트랩 (CINEMA TRAP)

얼마전, 해외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한 감독이 멀티플렉스 극장의 상영권을 장악하는 일부 영화들에 대해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다. 멀티플렉스 극장에는 보통 10개 이상의 상영관이 있지만, 흥행몰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3~4개의 상영관에서 한 영화만을 상영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 제작사나 관객들이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형 극장과 대형 배급사의 횡포 아닌 횡포는 영화 관공이 일상적인 문화생활로 자리 잡은 요즘,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영화 관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소위 독립 영화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거나 혹은 국내·외의 많은 영화제에서 후보작으로 선정된 영화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영화들은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기 전까지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화제에서 후보작으로 선정된 영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극장이 있다. 상영관은 1개, 전체 관람석은 150석이 되지 않는 작은 극장이다. 하지만 이 극장에서는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보기 어려운 영화들만 상영한다. 바로 “KU 시네마트랩”이라는 극장이다.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4층에 위치한 이 극장은 2012년 2월 초부터 영화 상영을 시작하였다. 비록 상영관이 1개이고, 관람석도 적은 편이지만, 음향 시설과 좌석 모두 나무랄데 없는 아주 깨끗한 극장이다. 진한 짙은 남색과 각종 홍보 영상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시끄러운 멀티플렉스 극장과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쾌적한 곳이다. 이 영화관에서는 하나의 영화를 반복해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3~5편의 영화를 번갈아 상영한다. 매주 주일에 업데이트되는 상영 시간표를 참고하면 주옥같은 영화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영화 관람 후에 고려대학교 교내와 개운산 산책로를 탐방할 수 있는 점은 이 영화관이 갖고 있는 또다른 장점이다. 주의할 점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검색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영화의 성향이 맞지 않거나 줄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꼭 보고 싶은 데 상영관을 찾지 못하면 영화가 있다면 KU시네마트랩의 상영 시간표를 검색해 보기 바란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 이상 초월 할 수 없다. 많이 듣고, 많이 보자.

한재영

korean.cinephile@gmail.com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전경

::내 아이 잘 키우는 법::

::생활의 Tip::

디지털 육아 VS 아날로그 육아

우리는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편리한 디지털 미디어가 안방에서도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함이 육아에 있어서는 때로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 역시 작년에 딸을 출산하면서 이제 막 육아전쟁에 뛰어들어 초보엄마입니다. 저부터도 신생아부터 3개월까지 흑백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보여주는 초점책을 스마트폰 앱으로 다운받아 보여주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하는 앱을 통해 아이가 우는 것이 배가 고퍼서인지, 잠이 와서 인지를 구별해 보기도 하며 아이를 디지털기기에 자연스레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디지털 육아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조사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최근 6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소아정신과를 찾은 소아 환자가 6배나 증가했으며, 그 원인이 아이들을 일찍이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돌된 아이가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 병원에 갔더니 '뇌 불균형'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원인이 아이가 청얼대면 스마트폰을 쥐여 주거나 비디오폰 보면서 달래다 보니 뇌 발달의 균형이 깨진 것이었다는 사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키즈 프로그램으로 낱말 맞추기, 놀이학습을 접한 5살 아이가 점점 더 자극적인 게임에 빠져들면서 ADHD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엔 식당이나 마트에 가도 뛰어들다니며 사고를 치는 아이들보다 부모들이 쥐어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디지털 미디어가 아이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것은 디지털 기기의 일방적이고 반복 자극이 좌뇌만 발달시켜 뇌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율신경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五感)을 통해 뇌 전반에 충분한 자극을 주어야 할 시기에 손가락 하나로 모니터나 마우스만 클릭하며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지니 그럴 수밖에요.

반면, 아날로그식 육아는 부모가 다소 시간을 빼앗길지언정 아이의 뇌 발달, 정서 및 인지능력을 높이는 데 훨씬 유용합니다. 신생아기부터 기계음이 아닌 부

모가 끊임없이 대화해주고 만져주며 충분히 교감하는 아이는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기, 아동기 때도 흠을 밝고 물장난을 치며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부모와 함께 양질의 도서를 소리 내어 읽으며 말하는 법, 듣는 법, 집중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식 육아법입니다. 물론 아이의 영혼을 위해 통독성경과 어린이 찬송을 주야로 들려주고, 부모들의 끊임없는 축복기도와 스스로 하는 기도 훈련을 생활화시킨다면 더없이 유익한 양육이 되겠지요. 편리하지만 독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아이들이 이러한 편리를 선택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들은 감독과 관찰에 주의하고, 조금 덜 똑똑하고 불편해보일지라도 아날로그식 양육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신6:6~7)

신의영

witmals5056@naver.com

곰팡이 제거법

산뜻한 집안 분위기를 흐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인 곰팡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곰팡이는 욕실, 복지, 가구, 베란다 등 집안 구석구석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 한 쪽 쪽을 시커맴게 물들어 미관상 좋지 않거나, 철이 지난 옷을 옷장 속에 넣어두었더니 곰팡이가 생겨 입지 못하는 등 속상한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곰팡이는 한번 생기면 주변으로 퍼지기 쉬운 뿐 아니라 인체의 호흡기와 장기에까지 침투하여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지금까지 방치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곰팡이를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더 이상 날리지 않도록 발생한 부위를 '살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 얼룩은 살균과 상관없이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하구요. 이 때 바르는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면 바른지 몇 분 후 곰팡이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균과 얼룩 제거를 했다면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건조작업!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조한 상태에서 재발 방지 코팅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코팅제는 한 번 칠하고 마른 후에 다시 한 번 덧칠해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벽지를 새로 바를 경우에도 도배하는 후에 코팅제를 첨가해서 발라주면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 발생 방지와 적극적인 제거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청결한 주거 환경을 지켜주세요.

민주혜

evergreen-love@nmail.net

::Edu Section::

성장통을 함께 건디는 부모가 되자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한 모든 생명체는 성장함에 따라 반드시 성장통을 겪게 된다. 흔히 성장통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성장통을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청소년으로 자라가면서 느끼는 정신적 고뇌와 아픔에 관한 것을 적어보려고 한다. 문단의 많은 작가들과 영화인들은 성장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자주 만들곤 한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은 자녀가 자라면서 겪는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항과 일탈,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픈 심을 소리를 내며 살고 있지만, 그 아픈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의 귀는 막혀있다. 불확실한 미래와 목표 없는 생활기운에서 힘에 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면담을 할 기회가 자주 있다. 공부와 왜 해야 하는지,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지 등 끝없는 입시전쟁과 무력한 삶에 시달리지만 아픔을 함께 나눌 이가 없어 자신과의 싸움이 힘에 겨워 녹초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줄 사람이 그들 곁에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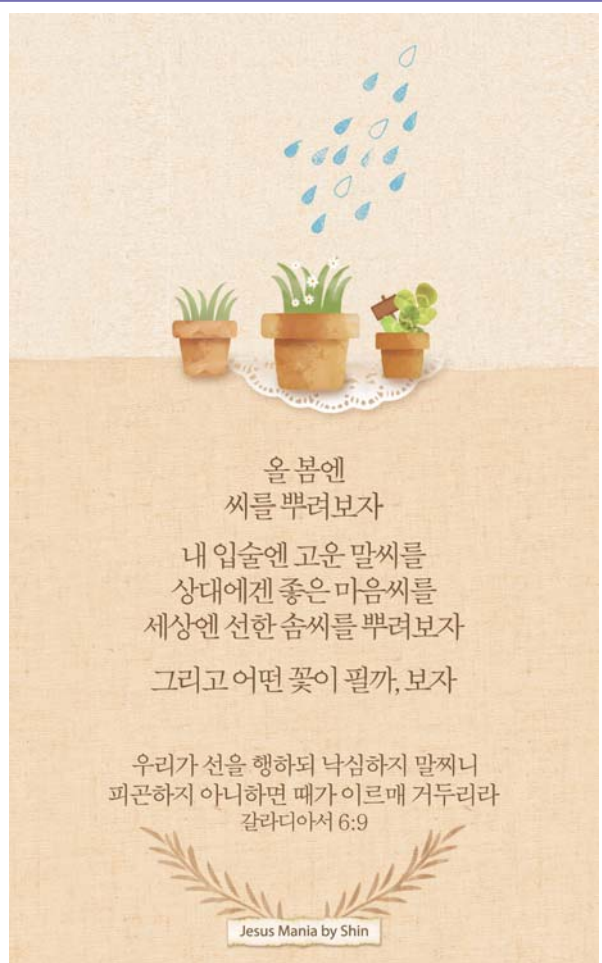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낌없는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아이가 있다. 지금의 모습과 달리 그녀는 학창 시절,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견뎌야했었다. 그 아픔을 알

아차리고 아이에게 손을 내민 건 그녀의 어머니였다. 매일같이 아픔을 적은 일기를 나눠 보면서 끊임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랑과 답을 쌓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허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생일날이면 빨간 장미를 사다가 머리맡에 두었고, 친구가 없어 적적해 할 때면 함께 여행도 다니는 등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아이의 심은 소리는 잦아들었고 세상을 향해서 환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장 아픈 고통의 시간을 함께 나뉘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넘치도록 표현하면서 살고 있다. 부모님을 향한 그녀의 예의바르고 아름다운, 진정한 담긴 효성어린 모습은 그녀의 성장통을 함께 겪어준 어머니께 헤드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처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자녀의 아픈 통증에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 내 자녀는 얼마나 아픈 고통과 통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부모가 되길 바란다. 목사님 말씀처럼 대화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의 성장통을 함께 치를 수 있는 지혜롭고 인자한 부모의 자격은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자.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김종일 장로

1992년 6월 7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집회가 열렸다. 잠실에서 있었던 메인스타디움 집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며 사회를 보았던 김종일 장로. 그 후 오랜 시간 변함없이 주일예배 사회를 진행하시는 김종일 장로를 만났다.

인터뷰를 시작할 무렵, 당신은 특별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지 않았기에 특별할 게 없다는 겸양의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김종일 장로의 삶은 순종이 세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산 증거였다. 진실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지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었다. 그분의 신앙과 철학, 그리고 그분의 삶과 함께한 예루살렘 교단의 역사를 들어보았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청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집안 대대로 불교였던 제가 교회를 가야겠다고 결심

키 작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한 것은 한 가정의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야 할데도 불구하고 저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 제가 바랐던 가정의 모습이 다른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창대한 복(창세기 12:2)이었음을 알았지만, 그 때에는 교회를 가면 막연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처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드린 예배 시간의 말씀에 크게 격동하였습니다. 그 날의 그 설교 말씀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되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과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어 주일 성수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서투른 기도로 저의 소망을 읊조리면서 나에게는도 '주님 안에서 화평한 가정'을 주시길 소망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약 3년 정도 후에, 철산리 예루살렘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예루살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교회의 정착은 하나님과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던 시절, 직분에 대한 두려움을 피해 예루살렘교회에 정착을 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저는 예루살렘교회에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의 시간이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과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가 예루살렘교단의 초대 장로로 장립될 수 있었던 것, 더구나 예루살렘 교단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연소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교사부터 장로까지 맡은 직분에 맞게끔 저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을 통한 믿음의 성장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책도, 찬송집도 찾지 못하던 시절, 그 때 간절히 기도했던 화목한 가정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 방법도 몰랐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응답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딱 한 가지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이 되라는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강권하시던 목사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잘나서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분처럼 목회에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바치시는 목사님처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단 한 말씀, '주의 종'이 되라는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온 예루살렘 교단의 키 작고 못생긴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큰 나무들은 목재로 베이고 열매 많은 나무는 자신의 과실을 자랑하다 태풍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불품없는 나무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자리에서 산을 지킵니다. 저는 지금껏 그런 나무로 이 자리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산이 나무를 키웠으니 이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나무가 산을 지키겠습니다.

김종일 장로

(글: 전훈기 기자 ppjee@hanmail.net)

::교육부 소식::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지난 3월 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울 중·고등부(담당: 이현승 전도사) 토요예배가 드려졌다. 작년 10월, 총회장님께서 '대방동시대'를 마감하고 반포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신 이후, 대방교육관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끝으로 중·고등부의 교육관은 정리되었다. 이후 새로운 예배장소인 '동작기도처'로 거처를 옮겨서 예배를 드린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처음, 대방시대가 끝나고 반포시대가 열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심 설렷습니다. 그런데 설렘도 잠시, 임시예배장소인 동작기도처로 처음 갔을 때, '아, 대방 시절은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도, 분반공부를 하기에에도 장소는 열악했습니다." (김별, 고3)

그런데 최근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

게 됐다. 위층에 거주하는 건물주에게서 '너무 시끄러우니 학생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요청이 왔고, 2월말까지 장소를 비워달라고 한 것이다. 이월 수 없이 다른 예배장소를 찾아야만 했고, 그러던 중 '여성플라자'를 예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월 2일과 30일,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30일에는 친구초청예배로 드려졌다. 하나님께서는 교육관을 정리하고, 기도처에 들어가는 과정과 건물주의 마음을 감파하게 하여 예배장소를 찾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여, 청소년부흥집회를 기획하게 됐고, 'One way!' (원웨이!, '오직 한 길'이라는 뜻, 감사: 이시대 목사)라는 주제로 성공리에 집회를 마칠 수 있었다. 감 길 모르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인도하여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소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

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중·고등부가 기도처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김정옥 전도사(동작1성전)는 "중·고등부가 절대로 그날 나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교구가 함께 쫓겨나게 되더라도 상관없고, 다 제가 책임질 테니 마음 놓고 기도처를 쓰세요!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다. 그 동안 교구에서는 중·고등부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구의 한 집사님은 남편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매주 진수성찬을 제공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교구 식구들의 섬김과 담당전도사의 말씀을 통하여, 각 부서가 '주님 안에 하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고, 중·고등부에서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개개인의 내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은성, 교사)

중·고등부는 이번 광야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섬김을 체험하며, 주어진 상황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를 구하고 있다. 부흥집회를 계획하시고, 각 부서간의 나눔과 섬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이창훈

honny0116@gmail.com



동작기도처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여성플라자의 교육관에서

요리(料理) 예찬

난 40대 중반의 직장인이다. 하는 일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에서 제작관리를 하고 있다. 다소 특별해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관리업무와 같은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3~4 년간 <해운대>와 <하모니> 등을 비롯한 여러 영화를 제작했고, 그중 70% 이상이 흥행하였다. 그러는 동안 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회사도 점차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나?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절실히 느껴지는 작년이었다. 회사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아마 살면서 가장 강도 높고 길게 이어지는 스트레스인 것 같았다.

작년 여름, 나는 나름의 탈출구가 필요했다. 고민하다가 관련학과의 특수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다. 이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며 공부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 질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석사학위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스펙 쌓기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가을학기 등록을 앞둔 어느 날, 저녁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친구가 "대기업 다니면서 승진하려고 새벽에 중국어학원 다니는 것은 자기계발이 아니다. 너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가꾸는 것이 자기계발이지. 너한테 필요한 건 그런 걸 찾는 것 같다."고 한

말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친구의 말에 100% 공감하면서 순간, 머릿속으로 회사근처에 있던 일식전문 요리학원이 떠올랐다. 점심때 지나다니며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건물을 보고는 "어~ 저긴 뭐 하는 곳이지?" 하고 눈여겨보았던 곳이었다. 나는 아마추어 실력이지만 평소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기회가 된다면 요리를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았다. 아주 조금.

다음날 사이트로 검색을 하면서 한참을 고민했다. 아무리 회사근처라 가깝긴 하지만 40대 중반의 직장인 남자가 요리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기에는 나름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후, 관리하는 분께 과감하게 카드를 내밀며 "3개월 할부로 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 대학원의 한 학기 등록금을 훨씬 웃도는 수강료를 지불했다. 와이프의 동의하에... 이후 나에게 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왜 여태 몰랐을까?", "내 나이 마흔 넷에 드디어 이런 취미를 갖게 되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요리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뽀뽀하게 진행됐다. 먼 저 2시간은 3~5가지의 요리 시연과 함께 선생님의 설명, 그리고 80분 정도는 각자 학생들의 실습, 나머지 시간은 평가 받고, 먹고, 뒷정리까지 마친다.

요리의 좋은 점은 첫째, 엄청난 집중력

이 요구된다. 선생님의 시연이 있긴 하지만 막상 실습에 들어가면 3~5가지의 음식을 시간 내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 선생님이 "10분 남았습니다."라고 고함치면서 시간을 재촉하면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초집중을 하며 무아지경을 겪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질 수가 없다. 요리 중에 느낀 편안함은 이후 이어지는 본업의 여러 업무들을 대할 때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었다.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creative)를 자극한다. 같은 시간, 같은 레시피, 같은 재료 등 똑 같은 조건에서 요리를 해도 결과는 다 다르다. 재료손질방법, 불의 세기, 양념의 정도, 그릇에 담기 등 모든 것이 영향을 준다. 결과물의 모양이 다르고 선생님의 평가도 당연히 달라진다. 정말 창의적 뇌사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 욕구가 신기하게 해소된다. 기분 좋아진다.

점심 식사를 그럴싸한 일식으로 해결하는 것과 같은 반 동료들끼리 간간히 맛집에 모여서 음식 만들기에 대한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며 수도 될 수 있는 재미는 덩이다.

세 번째, 주말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나의 취미생활을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러한 이유로 요리 예찬론자가 됐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요리, 한번 배워 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음식 만들기'라고 정한 이유는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만들어 주는 음식이고, 음식을 만들면서 가장 큰 기쁨은 남이 맛있게 먹어 줄 때'이다. 요리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남을 위해 요리하지만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 이 얼마나 수준 높고 멋진 행위인가?

JK필름 대표 김영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밀어엎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밀어엎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
(고전 15:16-18)

::성경에세이::

인격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난다

아들아!

좌밀실 여통구(坐密室 如通衢)라는 말을 들어보았니?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좁은 방에 앉아 있기를 넓은 네거리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다. 밀실에 앉아 있지만 마치 네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행동을 삼가라는 말이다.

사람의 본성은 자고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난다.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뭐 세상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너도 그럴 게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구나.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는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다. 인격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데, 그 됨됨이란 것이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이 없을 때와 다르지.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이나면, 사람이 없을 때 내 됨됨이가 내 인격이란단. 사람

앞에서는 체면도 있고, 양심도 발동되고, 들은 예절도 있어서 가능한 바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점잖을 떨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체면도, 양심도, 예절도 상실되기 때문이다.

아들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내 인격이 아름다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니? 그러므로 인격도 연습이 필요하단다. 반복적인 연습 말이다. 아비라고 예전에는 안 그랬겠지? 나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거리에 침도 빨고, 아무도 없으면 빨간 신호등일 때 길도 건너고 그랬지. 그런데 목사가 된 후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니가 그러지 못하겠더라. 아무도 나를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다가와서는 '목사님' 이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조심하게 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몸에 익은 습관이 되었단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혼자 있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흐트러진 모습이 되지 않는단다. 그것을 반복하다보면 무의식의 의식 속에 저장되었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거든.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보라고 했던. 여행을 가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제해오던 모든 것들이 붓을 터지듯 해서 본성이 드러나거든.

주님은 말씀하셨단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고(마6:1).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고, 사람이 없든 있든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잡사인 자도 많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밖에 나가면 장이나 답글 자들도 많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란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바르게, 누가 없어도 옳게, 정직하게 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거란다. 그러니 네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해라.

朋友

수화 예배안내

매주 주일 3부 & 4부 예배
금요일집회
문의: 주축복 전도사
010-3256-0288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는 바흐라는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주고 그 값을 받아 먹고사는 소작농이었던지라, 땅에 대해 맺힌 한이 워낙 컸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 마을의 총장이 1,000루블이라는 적은 돈만 내면 하루 동안 밭은 땅을 모두 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해 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신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요. 바흐는 한 걸음에 달려가 돈을 내놓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더위와 싸우고 흙을 건디며 넓은 광야를 달려갔습니다.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그는 출발지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주 싫어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출발점으로 내달렸고, 겨우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무리하게 달려온 나머지 도착하자마자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차지한 땅은 1㎢도 안 되는 자신의 무덤뿐이었습니다.

소망과 욕심은 다릅니다. 소망은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욕심은 나에게 필요 없고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욕심의 욕망을 좇지 말고 성령을 좇아사는 우리가 됩시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함께 가야 멀리 간다

농협, 서울우유, 썬키스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 협동조합이란 조합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몇몇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적은 이윤일지라도 조합원 다수의 상생(相生)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모델의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섬멸 이익이 적고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성장속도가 다소 느려보여도 서로 힘을 보태며 함께하는 협동조합의 경영방식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원리와 성경의 교차점을 목상하는 가운데, 나는 예전에 우연찮게 만난 한 그리스도인이 생각났다. 그는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고 믿음이 충만함에도 교회에 출석하기보다 나 홀

로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 이유를 묻자 교회에 나가거나 부처에서 활동을 하면,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이 적음으로 자신을 할퀴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비교되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교제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굳이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몇몇 말씀을 소개하며 그를 권고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잠14:4)'는 말씀처럼, 나를 할퀴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가 당장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도 그 영혼들을 섬기는 기회를 통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랑과 인내, 섬김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렇게 섬긴 성도가 변화되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를 섬기며 받은

상처들이아말로 곧 천국에서 주께 보여드릴 만한 거룩한 상처가 아닌가. 자신을 핍박하며 자신을 믿는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하던 바울을 예수께서 용납하시고 변화시키시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으며, 바울 역시 바나바와 헤어지면서까지 동행을 거부했던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느라 상대를 용납하고 협력하면 언젠가는 서로를 빛낸 든든한 파트너가 된다.

또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는 말씀처럼 환란과 핍박, 때론 부유함과 평안함으로 찾아오는 시험들 속에 함께 신앙을 나눌 친구, 나를 옹호 길로 채찍질해 줄 교역자가 없다면 언젠가는 결길로 나가거나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완벽하셨지

만 12사도들을 모으셨고, 바울도 디모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로 낳았으며, 하나님께서도 열두 영도 더되는 천사들을 부려 악의 영들을 멸할 수 있음에도 죄 많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이자 거룩한 군대로 부르시고 동역하고 계시지 않은가?

혹시 이 글을 읽는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있으면서도 교회의 울타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부서에 소속되는 신앙생활이 거주장소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동체, 부서, 동역자, 교역자들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1등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이다.

하인영

renming@daum.net

Good News

죽음을 앞 둔 인간들은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남기고 간 말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남긴 말과 불신자들이 남기고 간 말은 확실히 다르며,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에도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독일의 시인 괴테는 "어둠다. 너무 어둠다! 나에게 빛을 달라!"고 절규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누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고, 세상과 단절한 채 독도하기 위하여 본인이 기거하는 암자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생식을 하며 도를 닦았습니다. 평생에 선한 말과 행실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

으니 나의 몸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가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남기고 간 말들은 환희에 찬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좋다! 저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구나!"라는 말로써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출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당신께로 가나이다."라며 확신에 찬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은 뒤에

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만년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힘겹게 노후를 준비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슬럼프라는 이름의 성장통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2년 전, 귀가 얼얼할 정도로 추웠던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터벅터벅, 회사에 갑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불을 켜고, 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빈 종이를 꺼내고, 펜 뚜껑을 열었지요. 월요일 오전에 인천공항 실내 광고판에 실릴 어떤 기업광고의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며칠을 고민해보아도 당최 어떤 메시지, 어떤 이미지로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머릿속이 완전히 썩 포맷된 것처럼요.

결국 회사에서 밤을 꼬박 앓습니다. 건진 거 하나 없이, 야속하게 아침이 되고 말았지요. 썼지도 못한 채 꼬질꼬질한 몰골로 교회에 갑니다. 예배 2시간 동안, 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처럼, 주여 나의 텅 빈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달라고 떼쓰고 악쓰며 기도했지요.

예배가 끝난 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광고판에 실린 다른 광고들을 보면,

뭐라도 좀 떠오를까 싶어서요.

그렇게 두 시간쯤 있었나 봅니다. 그 때, '바로 이거야! 삶은 아이디어가!!', 드라마라면 이렇게 나왔겠지만, 현실은 밤을 꼬박 새나 인천공항을 가나,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밖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한숨도 못 잤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다시 회사로 갑니다.

다음 날 회의 시간,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딱 봐도 별다른 아이디어를 몇 개 가져갔는데, 역시나 모두 쓰레기통 신세가 됐지요.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일하고, 밥 먹던 날들이었지만, 하루하루 무참히 무너지던, 몇 달 동안 살얼만 하던, 슬럼프의 시기였습니다.

대나무는 보통 나무들보다 몇 십 배나 빠른 속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나무도 잠시 성장을 멈출 때가 있는 데요, 그 시기에 단단한 마디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마디를 통해 대나무는 다시 자라날 힘을 얻게 되고, 이 마디 덕분에 아무리 높이 올라도 쑤이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의 마디마디, 그것은 곧 성장통의 흔적이자 성장의 버팀목이지요. 이 얘기는 한창 슬럼프로 허우적거리던 저에게 팀장님이 해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마디를 만드는 시기가 있다고, 그 마디를 잘 견뎌내야 성장한다고, 이겨내라고요. 못나서, 부족해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노력 중이라서, 성장 중이라서, 단단한 마디를 만드는 중이라서 잠시 멈춰있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 전혀 안 해보던 방식으로도 일해보고, 선배와 동기의 조언대로도 해봤지만 꽤 오랫동안 정체되는 시기는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디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 스스로 나 좀 자라났구나, 느낄 만큼 성장해있었습니다.

지금 슬럼프인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아래로 떨어지려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려는 중이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좁은 길을 가는가?

이것이 답이다

예수께서 가리키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26절)